

**제목 Theme: 보내심을 받은 사람 A man Calling from God**

**본문 Scripture: 요한복음 John 1:6-8, 19-28 절**

6.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**There came a man sent from God, whose name was John.**

7.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**He came as a witness, to testify about the Light, so that all might believe through him.**

8.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**He was not the Light, but he came to testify about the Light.**

19.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**This is the testimony of John, when the Jews sent to him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, "Who are you?"**

20.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**And he confessed and did not deny, but confessed, "I am not the Christ."**

21.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**They asked him, "What then? Are you Elijah?" And he said, "I am not " "Are you the Prophet?" And he answered, "No."**

22.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이라 하느냐 **Then they said to him, "Who are you, so that we may give an answer to those who sent us?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?"**

23.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**He said, "I am A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, '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,' as Isaiah the prophet said."**

24.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**Now they had been sent from the Pharisees.**

25.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**They asked him, and said to him, "Why then are you baptizing, if you are not the Christ, nor Elijah, nor the Prophet?"**

26.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**John answered them saying, "I baptize in water, but among you stands One whom you do not know.**

27.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**"It is He who comes after me, the thong of whose sandal I am not worthy to untie."**

28.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**These things took place in Bethany beyond the Jordan, where John was baptizing.**

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 세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. 세레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메시아 즉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언하며 준비된 삶을 살았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. 본문에서는 **6 절에 “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”**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하는 일은 **“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”**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소명자가 해야 할 사역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즉 복음은 **“예수님을 전하고, 믿고,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”**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복음인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이 알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보여 주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. **“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”**라고 하셨습니다. 세레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알아 보지 못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 세레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므로 **“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”** 물었다고 했습니다. 세레 요한도 역시 예수님처럼 구약의 예언된 성경을 인용하여 **“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”**라고 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말할 때 구약의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게 살고 있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. 세레 요한은 메시아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**26 절에 “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.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”**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표현했고 자신은 오직 그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레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 보고 **“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”**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자신이 소개할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본문 이후에 내용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 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성령이 그가 메시아 인 것을 알려 준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세레 요한의 오직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성령이 충만하면 **데살로니가전서 5 장 23 절**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. **“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”**

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

먼저, 하나님으로부터 **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**입니다(**6 절 “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”**)

**1**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**소명으로** 불렀습니다 – 이사야 **43:1** 절 **“야곱아!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. 이스라엘아!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.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”**, - 이사야 **61:1** 절 **“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.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리라”**

**2**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**거룩한 종의 사명을** 다 해야 합니다 – 말라기 **3:16** 절 “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”

**3** 오직 **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야** 합니다 – 데살로니가전서 **5:24** 절 “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”

둘째, 보냄을 받은 자는 **오직 복음을**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(**7** 절 “빛에 대하여 증언하고”)

**1** 복음은 **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** 것입니다 – 로마서 **1:16** 절 “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”

**2**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직 **복음으로 살아야** 합니다 – 고린도전서 **9:14** 절 “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”

**3** 복음은 **구원을 이루는** 것입니다 – 로마서 **1:17** 절 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”

셋째, 보냄을 받은 자는 **오직 성령으로**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(**23** 절 “광야에서 외치는 자”)

**1** 성령은 **하나님의 뜻을 알게** 하십니다 – 고린도전서 **2:10** 절 “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”

**2** 성령은 **예수님을 증거해** 주십니다 – 요한 **1** 서 **5:6** 절 “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.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”

**3** 성령은 **소명을 이루게** 해 주십니다 – 요한복음 **3:34** 절 “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”